

학교 현장 중심의 다양한 훈련 실시와 국민 참여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재난대응능력을 높이는 「2014 안전한국훈련」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 모두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국 교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구촌은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해 11월 사상 최악의 태풍 하이옌으로 최소 6,200명이 사망하였고 400만 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미국 동부 지역은 폭설과 한파로, 서부지역은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과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강원도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은 크고 작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최근 반복되고 있는 지진 발생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필요로 하게 합니다.

현대 사회의 자연재난은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인간의 힘으로 막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대형화되고 빈번해져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방사능 누출 사고와 같은 자연재해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더불어, 국가기반시설 파괴 등 그 양상이 복합재난으로 변모되어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 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재해 발생 초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초기 위기대응 능력을 길러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식과 재난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하는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기관 및 단체, 유·초·중·고·대학 등 2만여 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요 훈련내용으로는 지진발생시 교육시설 사고 피해 대응 및 대피, 국가급 중요자료 보호, 풍수해 점검 및 대응, 학교폭력 등 학생안전, 감염병 등 학생건강, 연구·실험실 안전 등으로 우리부 소속기관·단체, 학교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별하여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한국훈련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국민들의 재난 안전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학교 현장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에게까지 재난안전문화를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훈련 적용을 통해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유·초·중·고·대학생을 포함한 교육 가족 여러분이 「2014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훈련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안전문화 행사와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안전문화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훈련을 통해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확고한 안전문화 의식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이나 주요 행사 계획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하여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4. 15.

교육부장관 서남수

